

MONTHLY KOFA

# 코파의

# 치

Tel. 0856 9113 2325, 0821 1122 8827  
E-mail : indokofa@gmail.com

Vol. **146**  
2026/11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gaeto@gmail.com

KOWEB INDONESIA

**홈페이지**

**제작 합니다**

**0812 9354 7052**

yoon@koweb-indonesia.com

카카오 ID : rickyoon

2027년

**카렌다 제작**

**021 5010 4614/15**

**0858 9060 0962**

pt.kwanggaeto@gmail.com

탁상용 / 벽걸이등

**KOFA** 제인니한국신발협의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 재인도네시아 한국 신발협의회 2026년 하반기 회장단 회의 열려



지난 15일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회장:이종운)는 땅그랑소재 임페리얼 CC에서 2026년 하반기 회장단회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 송창근 명예회장을 비롯해 많은 회장단이 모여 지난 상반기 사업보고와 하반기 범한국신발협의회 신발인의 날 행사에 관한 논의를 했다.

또한 다가오는 신발인의날 행사에 제8대 이종윤회장의 이임과 제9대 강우용회장의 취임에 관해 회장단의 결의와 한발 더 나은 코파를 만들자는 결기의 회장단 회의였다.

이종윤회장은 인사말에서 다가오는 11월 13일 연말 행사와 이취임식 행사에 대한 깊은 관심을 이야기했으며 새 회장에 대한 후원과 지원을 부탁했다. 그리고 차기 강우용회장은



회장단회의에서 그간 코파를 잘 이끌어 주신 이종윤회장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봉사의 자세로 회원사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한인 동포사회에서 인정받는 코파가 되도록 애써겠다고 했다. 송창근 명예회장은 최선을 다하고, 열정과 기쁨을 가지고 코파를 잘 이끌어 주길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차기 수석 부회장으로 추천된 홍종서 수석 부회장은 차기 강우용 회장의 추천으로 선임되었으며 차

기 코와 집행부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로써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회의회는 초대 송창근회장의 기반조성기를 거쳐 신만기 회장의 도약기, 그리고 이종윤회장의 성장기를 이끌어 내었고 차기 강우용회장의 혁신기를 기대하게 되었다.

[사무국]

## ‘신한인도네시아 금융그룹’ 출범… 900명 규모 종합금융그룹



▲서울=뉴시스|신한금융그룹은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인도네시아 현지 금융지주회사인 '신한인도네시아 금융그룹'을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신한금융그룹 제공). 2026.10.13. photo@newsis.com

신한금융그룹은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인도네시아 현지 금융지주회사인 '신한인도네시아 금융그룹'을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신한인도네시아 금융은 신한  
인도네시아은행이 현지 금융  
지주회사 역할을 겸하는 사업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출범  
했다.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신한카드와 신한투자증권이 보유한 현지법인 지분 일부를 인수해 신한인도파이낸스와 신한투자증권 인도네시아의 지분을 각각 '50%+1주' 씩 확보했다.

신한금융은 지난 10여 년간 인도네시아 사업을 확장해 약 900명 규모의 종합금융그룹

으로 성장했다. 이번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계기로 계열사 간 협업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재계 4위인 시나르마스 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업금융과 공급망 금융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전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이번 협약은 현지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시나르마스 그룹과 함께 현지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금융 가치를 제공하고 양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KOFA의 힘 광고를 제안합니다.

## 1, 개요

주요대상 : 신발완제, 부품업체, 및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코파소식지(월간)

특 징

- 1) KOFA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되며 관련 회원사 약 200여 업체 대표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 2) 전달 하고자하는 정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홍보 할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높습니다.

## 2, 연락처 및 문의처

KOFA 사무국 : 0821 1122 8827(mr. kang)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플랜트 / 건설 / 토목



<https://hanjin.co.id/>



Jl. Raya Serang – Jakarta KM. 80, Kel. Kaserangan, Kec. Ciruas –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mailto:pthanjin@hanjinind.co.id)

<https://hanjin.co.id/>

## “중국 제조업, 중부자바 투자 ‘러시’ ”

스마랑에 섬유, 끈달에 건설자재 공장 가동  
끈달 올해 상반기 투자액 6조5600억 루피아...중부자바주에서 2위



▲[홍강텍스타일 공식 LinkedIn]

중국 푸젠성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에 생산기지를 확대하고 있다. 스마랑에서는 섬유공장이 생산에 들어갔고, 인근 끈달(Kendal) 경제특구에서는 건설자재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끈달은 자바섬 북부 해안에 있는 중부자바주의 군 단위 행정구역이다. 중부자바 주도인 스마랑 인근 서쪽에 자리하며, 북쪽으로 자바해를 마주한다. 끈달 경제특구는 이

지역 안에 조성된 산업단지이다.

지난 30일 안타라통신은 중국 신화통신 보도를 인용, 푸젠성 기업들의 중부자바 진출 사례를 소개했다. 홍강텍스타일(Honggang Textile)은 2023년 인도네시아 시장을 조사한 뒤 같은 해 말 스마랑에 공장 부지를 매입했다. 공장은 2025년 8월 생산을 시작했다.

회사는 공장을 짓는 동안 인



도네시아 대학생들을 선발해 중국에서 연수를 진행했다. 교육을 마친 인력은 인도네시아 사업장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맡았다. 회사 측은穆斯林 직원을 위한 할랄 식당을 운영하고, 업무 지침도 중국어와 인도네시아어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끈달에서는 건설자재 분야의 투자가 이어졌다. 푸젠홍성머티리얼테크놀로지 계열사인 HSG머티리얼인도네시아가 투자한 사업이다.

이 회사는 끈달 경제특구에 7,100억 루피아를 투자해 건설자재 공장을 설립했다. 생산 품목은 콘크리트 말뚝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PC) 등이다. 예상 고용 규모는 최대 400명이다. 홍강과 홍성 계열사의 투자는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두 나라, 두 산업단지’ 협력 구상과 연결돼 있다. 양국 산업단지를 연계해 투자와 기술 협력,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끈달군 전체의 투자 규모도 늘었다. 끈달군청에 따르면 실현된 투자액은 2024년 14조2100억 루피아에서 2025년 약 15조9000억 루피아로 증가했다. 섬유 업종이나 경제특구만이 아닌 끈달군 전체

를 집계한 수치다.

중부자바 주정부가 2026년 7월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끈달군의 올해 상반기 투자 실현액은 6조5600억 루피아였다. 스마랑시의 6조5700억 루피아에 이어 관할 지역 내 2위를 기록했다. 이는 끈달 경제특구를 포함한 끈달군 전체의 투자 실적이다.

이 지역의 주요 투자 거점인 끈달 경제특구는 인도네시아 자바베카와 싱가포르 쉼브코 프개발이 합작해 개발했다. 2016년 산업단지 운영을 시작했고, 2019년 경제특구로 지정됐다.

운영사는 지난 7월 8일 기준으로 140곳 이상의 기업을 유치했으며, 고용인원은 4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산업용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지 1000헥타르를 추가로 개발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투자 분야는 의류와 생활소재, 숙박시설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경제특구 운영사는 9월 8일 합성피혁·의류·호텔 분야의 투자 양해각서 3건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안후이안리와 저장통리는 각각 합성피혁과 의류 사업을 추진한다. 인도네시아 파다마스수르야마크무르는 특구 안에 4성급 호텔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은 투자 협약 단계로, 실제 투자 집행이나 시설 가동까지 완료된 것은 아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장관 “이슬람 율법의 가상자산 금지, 바뀔 수 있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이슬람 율법상 금지 판단이 향후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현지매체에 따르면 나사루딘 우마르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은 최근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오늘 금지된 자산이라도 내일 문제가 해결된다면 허용될 수 있다”며 “반대로 새로운 위험이 발견되면 허용된 자산도 금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2021년 이슬람 최고 종교기구인 울라마협의회(MUI)의 결정을 따르고 있다. 당시 MUI는 가상자산을 화폐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상자산의 상품 거래



▲사진=셔터스톡

는 허용했다.

우마르 장관은 “가상자산의 허용 여부는 불확실성과 잠재적 피해 등 객관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MUI 산하 국가샤리아위원회(DSN-MUI)는 오는 11월 비트코인(BTC)에 관한 새로운 종교적 판단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ource: Kendal Industrial Park



PT ALJUM GREEN NUSA

### 정직하고 품질 좋은 제품으로 인정받겠습니다!

— LS-AG Cable Indonesia 공식 대리점 —



LV 케이블/Building 케이블



산업용 케이블



Overhead 케이블



Busduct

**HEAD OFFICE**  
Ruko Dalton Extension DLNT 052-053  
Jl. Scientia Boulevard, Gading Serpong,  
Curug Sangereng, Kelapa Du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810  
Tel: 0811 8126 7788 (☎)  
0811 8430 561 (한국인 상담)

**LS-AG Cable Indonesia**

www.lscns.com  
www.lsag.co.id

**Karawang 공장**  
Artha Industrial Hill  
Blok E Kav 20-21, Wanajaya,  
Telukjambe Barat, Karawang  
Jawa Barat 41361, Indonesia  
Tel: 021 3973 3988

OFFICIAL DISTRIBUTOR | 공식 대리점

**PT ALJUM GREEN NUSA**

# 인도네시아 노동계, 2027년도 주 최저임금 ‘7.5%~9.5% 인상’ 촉구... 전국 38개 주 연쇄 시위 예고

KSPI “임금 인상이 기업 파산 부르지 않아... 폐업 원인은 글로벌 수요 둔화와 운영비 부담”

정부 임금 결정 시한 앞두고 지방정부 압박... 퇴직금 기준 현실화 및 외주 규제 개선도 병행 요구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수만 명 규모의 노동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쇄 시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I)과 노동당은 오는 2026년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인도네시아 38개 주 전역에서 2027년도 주 최저임금(UMP) 7.5%~9.5% 인상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정부가 정한 차기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을 앞두고 노동계의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각지의 주지사 집무실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 11월 1일 고시 시한 앞두고 38개 주지사 집무실 포위... “결정권 있는 지방정부 압박”

사이드 이크발(Said Iqbal) KSPI 총재 겸 노동당 대표는 2026년 10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 계획을 공식화했다. 사이드 대표는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전하고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며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38개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이번 투쟁은 자카르타 중앙정부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며,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권한을 가진 각 지역 주지사를 직접 겨냥한다. 자카르타 역시 주지사 집무실 앞에서 집중 집회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 최저임

금(UMP)과 주 업종별 최저임금(UMSP)은 법적 효력 발생일(2027년 1월 1일)의 60일 전인 2026년 11월 1일까지 최종 확정·고시되어야 한다. 노동계는 지방정부 및 임금위원회가 상한선을 최종 확정하기 직전인 10월 하반기를 정책 개입의 최적기로 판단하고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지표 상한선 적용... “하한 7.5%·상한 9.5% 산출”

대통령 노동·복지 특보를 겸임하고 있는 사이드 대표는 이번 요구안(7.5%~9.5%)이 객관적인 거시경제 지표와 법정 산식을 면밀히 검토해 도출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인상안 산정에는 전국 평균 인플레이션율,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 그리고 현행 정부령(PP 2026년 제49호)에 규정된 특정 지표(알파,  $\alpha$ )가 반영됐다.

KSPI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8월까지의 지표를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3.20%, 경제성장률은 5.43%로 집계됐다(미발표된 9월 통계청 수치 제외). 여기에 법정 알파 지표 범위(0.5~0.9) 중 최고치인 0.9를 대입하면 전국 평균 인상률은 약 7.7%로 도출된다.

사이드 대표는 “전국 평균 산출치는 7.7%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역의 현실을 감안해 하한선을 7.5%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상한선 9.5%는 지역 간 심각한 경제 편차를 고려한 조율의 결과다. 일례로 니켈 등 광업 붐으로 경제성장률 20.05%, 인플레이션율 5.8%를 기록한 북말루쿠주의 경우, 가장 보수적인 지표(알파 0.5)를 적용해도 인상률이 12.5%에 육박한다. 이에 대해 사이드 대표는 “지난 10여 년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된 전례가 없다는 점과 산업계의 수용 능력을 두루 고려해 상한선을 9.5%로 현실화했다”며 노동계의 요구가 비이성적인 과잉 주장이 아님을 역설했다.

## 재계 파산 우려 일축... “폐업은 저임금 지역 집중, 본질은 수출 침체와 간접비용”

노동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임금 인상 발(發) 기업 파산 및 구조조정 우려’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이드 대표는 통계를 제시하며 “2025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공장 폐업이 가장 빈번했던 곳은 자바·아중부·자바, 마자렝카, 수메당 등 역설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1년간 발생한 대규모 정리해고와 산업 침체의 근본 원인이 임금이 아닌 글로벌 거시환경 악화에 있다고 진단했다. 주로 타격을 입은 섬유·의류·신발 제조업체들은 대표적인 수출 지향형 기업들로, 주요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I) 대표 Said Iqbal (Foto: Istimewa)

수출 대상국의 소비 침체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대외 주문이 급감한 것이 실적 악화의 결정타였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산업용 가스 및 유류(BBM) 가격 급등, 고물류비 등 원자재와 운영비 전반에 걸친 구조적 고비용이 기업 채산성을 악화시켰다고 진단했다. 기업이 급증한 생산 간접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고용 축소로 대응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이드 대표는 “모든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의 임금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며 “정부와 경영계는 기본공제(PTKP) 소득세 개편, 부가가치세(PPN) 환급, 통관·물류비 인하, 납기 준수 시스템 정비 등 간접비용(Overhead Cost)을 낮추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근본적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노동법제 개정 요구도 병행... 퇴직금 정상화 및 외주 근로 규제 강화 촉구

한편, 이번 연쇄 시위에서 KSPI와 노동당은 최저임금 쟁취 외에도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핵심 과제로 내걸었

다. 노동계는 현행 정부령(PP 2021년 제35호)의 전면 대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법정 기준의 0.5배까지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퇴직금 규정을 문제 삼으며, 최소 법정 기준 1배 이상의 지급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령(2026년 제6호)의 아웃소싱(외주·파견 근로) 허용 범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새 법령 제정도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사이드 대표는 “파견·외주 직종을 극히 엄격하게 제한해 명확한 원·하청 고용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노동자가 신분 보장, 단결권, 퇴직금 수급권 등 법이 보장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허점을 즉각 메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월 1일 고시 시한을 보름여 앞두고 시작되는 이번 노동계의 38개 주 총력 투쟁으로 인해, 임금 인상 폭과 제도 개편을 둘러싼 인도네시아 노·사·정 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포스트]



**COSMO** www.cosmofamily.com



GFRP WIREMESH



GFRP REBAR

더 가볍게, 더 강하게.  
인도네시아 최초 SNI 인증 GFRP 보강근 제조사.  
부식 없는 철근 대체 솔루션  
**Cosmo GFRP Indonesia.**

Office : Menara Bidakara 1, 21st Floor, Unit 2152 & 2156 Jl. Jenderal Gatot Subroto Kav. 71-73 Kelurahan Menteng Dalam, Kecamatan Tebet Kota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870  
Factory : Kawasan Industri Suryacipta City of Industry, Jalan Surya Madya XIV, Kavling I-67A3, Kabupaten Karawang, Provinsi Jawa Barat 41362  
Tel. : +62 811 9630 8805  
Email : jaydentyp@cosmogfrp.co.id

## [교민을 위한 한국 세무 상식 ②] 거주기간 계산과 신분 전환 시점

지난 호에서는 해외지사에 파견된 주재원 김주재 씨의 사례를 통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가르는 기본 판정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언제부터 비거주자가 되는지’

를 실제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조심2015서0506, 2016.10.19.)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심판례로 보는 사실관계  
은퇴한 A씨 부부는 캐나다로 이민하기로 하고, 2011년 3월 29일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며 출국했습니다. 두 아들은 이미 캐나다에 정착해 있었습니다.

－ 출입국 경과: 출국 당시 국내에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처분을 두고 회사와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A씨 부부는 캐나다에 14일간 머문 뒤 4월 12일 재입국했습니다. 이후 약 3개월간 국내에 머물며 조정 절차를 마치고 주식을 회사에 넘겼으며, 대금을 받아 캐나다로 송금하는 절차까지 마친 뒤 7월 12일 다시 출국했습니다.

－ 자산 현황: 국내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민을 준비하는 동안 매각한 것은 토지 한 필지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고, 일부는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 주민등록: 재출국 이후에도 1년 가까이 말소되지 않았습니다.

A씨 부부는 영주권을 취득하여 이민 목적으로 출국한 3월 29일의 다음 날부터 이미 비거주자였고, 재입국은 재산 정리를 위한 일시 귀국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부부가 비거주자가 되는 날은 출국일인 3월 30일일까요, 재출국일인 7월 13일일까요?

1. 거주기간의 계산 기준

① 계산 기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② 일시적 출국의 예외: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에 해당하여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                          |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
|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                                                |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③ 183일의 기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1.1.~12.31.)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또는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2. 거주자 비거주자 신분의 전환 시기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이기준이 됩니다. A씨 부부처럼 출국과 재입국이 반복된 경우에는 두 번의 출국 중 어느 것이 ‘주소 이전을 위한 출국’ 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3. 조세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A씨 부부가 비거주자가 된 날을 최초 출국일의 다음 날이 아닌, 최종 재출국일의 다음

날인 7월 13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지 체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습니다.

최초 출국 후 A씨 부부가 캐나다에 머문 기간은 14일에 불과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 정도 기간으로는 현지에서 일상적인 생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출국은 이민 생활의 시작이 아니라 이민을 위한 사전 준비 성격의 체류였다는 것입니다.

▶ 국내 생활 기반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A씨 부부는 국내 부동산 대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고, 주요 재산의 정리는 재입국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재입국 기간은 일시 귀국이라기보다 이민의 준비 기간이었고, 그동안 생활의 중심은 여전히 국내에 있었다

고 본 것입니다.

▶ 주민등록이 유지되었습니다.

주민등록이 거주자 판정의 결정적 기준은 아니지만, 재출국 이후까지 국내 주소가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국내 생활관계가 이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정 중 하나로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은 자녀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으므로, 자녀가 캐나다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A씨 부부의 생활 근거가 옮겨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조세심판원은 영주권 취득이나 이주 의사보다 생활의 근거가 실제로 언제 옮겨졌는지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국내 재산을 정리하고 현지 정착을 위해 떠난 7월 12일의 출국을 진정한 의미의 ‘주소 이전을 위한 출국’으로 본 것입니다.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단순히 형식적인 출국일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주 의사가 분명하더라도, 현지 체류가 사전준비 수준에 그치고 국내 재

산과 생활 기반이 상당 부분 남아 있다면 그 기간은 여전히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주를 준비하신다면 국내재산 정리를 가급적 출국 전에 마무리하시고, 현지 정착 시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향후 신분 판정을 둘러싼 다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호에서는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의 거주자 판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법인 호연

www.ihoyeon.com

E: 01037375005@ihoyeon.com

www.ihoyeon.com

T: +82 2-782-8200

대표이사/세무사 이 석 봉

· 국립세무대학 졸업(2기)

· 연세대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조세법 전공)

· 강남대 세무학 박사과정 수료

· 국제세 및 서울지방국세청 29년 근무

금융본부장/세무사

정규 호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 투자자산운용사, 공인중개사

· 신한투자증권

재무(자금)/IB/금융세TF 등

## 인도네시아, 2026년 새 형법에 혼외 성관계 · 동거 처벌 규정 ‘주의’ 혼외 성관계 최대 징역 1년, 혼외 동거 최대 6개월... 배우자 · 부모 · 자녀만 고소 가능

인도네시아에서 2026년부터 시행된 새 형법에 따라 혼외 성관계와 혼외 동거가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가벼운 모욕행위에 대해서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22일 ‘2026년 신형법 관련 주의 조항 안내’를 통해 혼외 성관계와 동거, 모욕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을 소개하고 관련 법률 위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새 형법 제411조에 따르면 혼외

성관계를 한 사람은 간통죄로 최대 징역 1년 또는 1천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412조는 혼외 동거에 대해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1천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혼외 성관계와 동거에 관한 처벌 규정은 친고죄로 적용된다. 친고죄란 법률에서 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가 고소할 수 있으며, 혼인하지 않은 사람은 부모 또는 자녀에게 고소권이 있

다. 따라서 제3자가 혼외 성관계나 동거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사관은 진정한 혼인 의도가 없는 성관계가 고소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가족을 사칭하면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새 형법은 가벼운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제436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말이나 문서, 행동으로 상대방을 경미하게 모욕

한 경우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1천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사관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대방을 개, 돼지, 원숭이 등 동물에 빗대어 부르는 행위를 가벼운 모욕행위의 사례로 소개했다.

대사관은 관련 법률에 대한 문의나 사건 ·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사관 영사과(+62-21-2967-2580), 24시간 운영되는 대사관 긴급전화(+62-811-852-446),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해 달라고 안내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스크린 골프 1등 설치 업체

설치업체 : 신발, 의류공장 기숙사 / 탄광, 발전소 현장사무소 / 개인주택 / 고급별장 / 아파트, (영업용) 루프, 대형빌딩, 백화점

### 착한가격/완벽한 시공/신속한 A/S

인니 최초 스크린골프(16년차)시장 개척중  
인니 전지역 (200대 이상 설치) 풍부한 노하우  
영업점: 롯데에비뉴 5층, 땅그랑, 버카시  
신속한 A/S팀 운영중  
이용료없이 무제한 사용가능

### 직원 복지용(다용도) 스크린룸 활용

다양한 골프연습 모드가능  
직원간 화목한 스크린게임 이용  
영화감상/노래방/운동경기 관람  
온라인 화상회의 가능

WA / Call : 0815 7456 8000 (Mr Lee Jung Gi)  
Email : vgolf03651@gmail.com  
Kakaotalk : golf 03651



중고

SHI

## 인니 섬유 · 신발업체, 설비 교체 지원 신청 조건은

섬유 설비 구입비 최대 5억 루피아 환급...정책대출은 연 5%포인트 이자 보조

무함마드 사르무지 산업장관이 섬유 · 의류와 가죽 · 신발산업을 우선 육성 분야로 제시하고 노후 생산설비 개선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장관은 평균 사용 기간이 20년을 넘는 섬유산업 설비의 현대화를 위해 기존 설비 교체 지원사업과 노동집약산업 대출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6일 안타라통신이 기존 제도의 지원 방식과 신청 조건을 정리한 안내 기사에 따르면,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섬유업체가 기계를 구입한 뒤 비용 일부를 돌려받는 환급 사업과, 섬유 · 신발 등 노동집약산업 기업이 은행에서 설비 구입자금을 빌릴 때 정부가 이자를 보조하는 정책대출이다.

**섬유업체는 구입비의 10~25% 환급**

섬유산업 설비 지원은 기업이 먼저 기계를 구입 · 설치하고, 심사를 거쳐 비용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산업부 장관령 2024년 제20호에 따르면 국산화율(TKDN) 25% 이상 인증을 받은 인도네시아산 기계는 인정 구입액의 25%를 지원한다. 수입 기계나 해당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도네시아산 기계는 10%이다. 중고 · 재생 기계는 제외된다.

8월 27일 개정된 2026년도 시행 지침은 기업당 환급 한도를 5억 루피아로 정했다. 신청기한은 11월 15일이며,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지원받으려는 기계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11월 15일 사이에 구입하고 설치해야 한다. 설치 장소는 산업허가에 기재된 사업장이어야 하며, 구입 · 대금 지급 ·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대상 업종에는 방직 · 직조 · 염색가공 · 편직 · 부직포 · 의류 제조 등이 포함된다. 신발 제조는 이 환급사업의 대상 목록에 들어 있

지 않다.

**투자액 · 허가 보유기간 등 자격 요건 확인해야**

환급사업의 주요 신청 조건은 토지 · 건물을 제외한 투자액이 100억 루피아를 초과하고, 해당 업종의 산업허가를 4년 이상 보유한 법인이다. 지원을 신청하는 기계의 총 구입액은 최소 5억 루피아다.

국가산업정보시스템(SINas)을 통한 산업정보 보고와 산업 4.0 준비도 자체평가, 폐수처리 관련 요건 등도 적용된다.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서류 ·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요건을 갖췄다고 자동으로 환급받는 것은 아니다.

한국계 현지 법인도 신청 요건을 검토할 수 있다. 규정은 인도네시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공식 신청서에는 외국인투자기업(PMA)을 표시하는 항목이 있다. 규정과 서식상 외국인투자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개별 기업의 지원 가능 여부는 업종 코드와 투자액, 허가, 설비 요건 등을 심사받아야 한다.

**신발업체도 이용할 수 있는 설비 구입용 대출**

섬유 · 의류와 가죽 · 신발업체는 노동집약산업 대출(KIPK)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식음료 · 가구 · 완구산업도 대상이다.

만디리은행 안내에 따르면 대출한도는 5억 루피아 초과부터 100억 루피아까지이며, 설비투자 대출기간은 최대 8년이다. 신규 기계 구입비의 최대 75%를 대출하므로 기업은 최소 25%를 자체 자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주요 조건은 해당 산업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최근 12개월간 연속으로 최소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다. 사업자 등록과 납세, 근로자 사회보장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른 정부 정책대출을 동시에 이용

하고 있는지도 확인하며, 은행의 신용심사를 거쳐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대출 집행 실적도 있다. 산업부가 지난 6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26개 차주에게 총 910억 루피아가 공급됐다.

금리를 연 5%로 고정하는 상품은 아니다

만디리은행이 안내하는 정부 이자 지원은 연 5%포인트다.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은행이 정한 대출 금리에서 정부 지원분을 뺀 금리

다. 예를 들어 은행이 정한 금리가 연 11%라면 정부가 5%포인트를 보조하고 기업은 연 6%를 부담한다. 은행금리가 연 12%라면 기업 부담은 연 7%가 된다. 이 수치는 지원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적용금리는 아니다. 따라서 ‘5% 이자 지원’이라는 설명을 ‘기업이 연 5% 금리로 빌린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신청할 때는 은행금리와 정부 지원분, 기업이 실제 부담할 금리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금리

## 인니 정부, 고액 납세자와 자산 추적에 AI 도입

인도네시아 국세청(DJP)은 특히 팜유 산업을 중심으로 고액 자산가의 자산 변동을 추적하고 잠재적 탈세를 포착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1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재무부 차관 누르폴리소 입누 아만은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 그 가족, 기업, 자산 및 각 주체 간의 관계를 시각화하는 대시보드에 AI를 통합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 도구는 뉴스 보도와 기업 공식 자료를 분석해 인수합병(M&A)이나 주식 매각 같은 기업 활동을 파악하고, 대시보드상에서 개인의 보유 주식 가치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한다.

차관은 13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7회 ‘일대일로 세무행정 협력포럼(Belt and Road Initiative Tax Administration Cooperation Forum; BRITACOM)’에서 “이를 통해 세무 공무원들은 자산 변동을 1~2년 뒤가 아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은 머신러닝을 활용해 팜유 산업 내 잠재적 세무 불일치를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분석하



고, 가공 공장이 매입한 생과송이(FFB)의 물량을 예상 오일 생산량 및 신고된 매출액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기업마다 송장에 상품을 표기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무엇이, 얼마나, 어떤 가격에 판매되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입누 차관은 예상 생산량과 신고 매출액 간의 불일치가 향후 정밀 세무 조사를 위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빅데이터, AI, 머신러닝이 세무 당국의 리스크 파악과 납세자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기술이 효과를 거두려면 유능한 인력, 명확한 규정, 그리고 대중의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는 납세자 등록, 세금 계산서 발행, 납부, 세금 신고 등을 통합하는 국세청의 ‘코렉스(Coretax)’ 플랫폼 구축을 포

가 대출기간 동안 고정되는지, 일정 시점에 바뀌는지도 대출약정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한국계 기업의 대출 자격은 은행에 별도 확인**

만디리은행은 이 대출을 중소 규모 산업체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법인의 이용 가능 여부를 명시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섬유 설비 환급사업의 외투법인 관련 규정을 정책대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한국계 기업은 법인 형태와 기업 규모가 취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은행에 확인해야 한다. 이번 확인에서는 한국계 기업의 실제 지원 사례와 환급사업의 잔여 예산까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데일리인도네시아]

함한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세무 행정 현대화 노력의 일환이다.

입누 차관은 현재 정부가 해당 자산가 및 그들의 기업과 관련된 뉴스와 공식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AI 기능을 추가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비모 위자안또 국세청장은 세정 업무에 AI를 도입할 때 납세자 데이터의 기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이 정부의 기술 도입 결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DJP)이 자체 역량을 활용하는 한편, BRITACOM 등을 통해 세정 분야 AI 활용에 앞서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BRITACOM 사무국장은 납세자 데이터 보호를 포함한 세무 서비스 분야의 AI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황 사무국장은 개발도상국이 국내 자원 동원 및 공공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전담반에 비모 청장을 초빙할 계획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 HANSHIN

## 에어 콤프레서



### TANGERANG 본점

유 성 열 : 0812 8037 0303 | Mario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 CIKARANG 영업소/AS접수

김 동 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 JEPARA 영업소/AS접수

정 연 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

## 인도네시아, 새 노동보호법 통과...진출 한국 제조기업 비상

인도네시아 하원, 2026년 10월 6일 313개 조항의 노동보호법 전격 의결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 및 퇴직금 사전 적립 의무화로 고용 비용 급증  
봉제 · 신발 · 섬유 등 현지 진출 한국 노동집약 제조기업의 인건비 부담 가중



▲인도네시아 하원이 2026년 10월 6일(현지시각) 본회의를 열고 총 313개 조항으로 구성된 노동보호법을 의결했다. 이미지=제미니아이3

인도네시아 하원이 2026년 10월 6일(현지시각) 본회의를 열고 총 313개 조항으로 구성된 노동보호법을 의결했다고 블룸버그가 2026년 10월 7일 보도했다. 이번 입법은 2024년 10월 헌법

재판소가 일자리창출법에 포함된 노동 조항을 2년 내에 별도 법률로 분리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현지 노동조합들은 수 주간 평화 시위를 벌이며 노동계 요구 사항

의 반영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노동보호법 본회의 통과 배경 인도네시아 하원의 이번 입법은 수년간 이어진 일자리창출법 체제의 노동 규정을 전면 개편하는 과정에서 단행됐다. 현지 헌법재판소는 2024년 10월 일자리창출법 내 노동 조항을 독립된 법률로 제정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원은 시한에 맞춰 단독 법안을 처리했으며, 심의 기간 동안 노동계의 거센 요구와 평화 시위가 이어졌다.

강화된 해고 요건과 퇴직금 적립 불룸버그는 야시엘리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의 의회 발언을 인용해 새 법이 일부 상황에서 퇴직금을 통상액의 절반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

했다고 전했다.

또한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해고 시 지급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퇴직금 적립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다만 불룸버그가 보도한 시점 기준으로 법률 전문과 시행 세칙은 공식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 제조기업 비용 구조 영향 인도네시아 하원이 313개 조항의 노동보호법을 통과시키면서 봉제, 신발, 섬유 등 현지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운영하는 한국 노동집약 제조기업들은 비용 구조를 전면 재편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했다.

새 법이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퇴직금 총당금의 사전 적립을 의무화하는 한편 외주와 기

간제 계약 활용 범위를 축소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지 진출한 한국 제조기업들과 협력사들은 고용 유연성이 크게 축소되고 퇴직금 사전 적립 의무에 따른 고용 비용 증가와 법적 분쟁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된다.

인도네시아 사용자협회와 현지 진출 기업들은 법률 전문과 시행령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영향을 면밀히 분석 중이며, 최종 비용 영향은 세부 규정이 확정된 후에야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향후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시행령이 공개되기 전까지 현지 진출 기업들은 기존 해고 계획과 임금 구조를 시급히 재검토해야 한다.

다만 향후 공개될 시행령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나 특정 노동집약 업종에 대한 예외 규정이나 유예 기간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경우 이러한 영향 경로는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 인도네시아, 농지개혁법 제정... 토지 분쟁 해결 · 재분배 제도화

대통령 직속 장관급 기구 신설... 분쟁 토지 거래 · 허가 동결 가능

인도네시아 하원(DPR)이 토지 소유 불평등과 중복 권리, 장기화된 농촌 토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농지개혁법을 제정했다. DPR은 지난 9월 22일 본회의에서 「농지개혁 규제법」(Agrarian Reform Regulation Law)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토지 분쟁 해결과 권리 회복, 토지 재분배를 하나의 법적 틀 안에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농지개혁을 위한 단일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처음이라고 자카르타포스트는 전했다.

새 법의 핵심은 농지개혁을 전담하는 대통령 직속 장관급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토지 행정은 농지공간계획부 ·

국가토지청(ATR/BPN), 산림 관련 부처, 농업 부처 등 여러 기관에 권한이 나뉘어 있어 같은 토지에 대한 행정 기록과 권리가 중복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새 기관은 토지 계획과 감독, 분쟁 해결을 부처 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기관은 농지개혁 로드맵을 수립하고 토지 소유 불평등이나 분쟁이 심한 지역을 우선 개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분쟁이 진행 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거래나 관련 허가를 동결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농지 소유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토지 소유 한도와 재분배 원칙도

법에 담겼다. 방치된 토지와 국가 관리 토지 등을 대상으로 영세농민, 무토지 농민, 농업노동자, 전통 어민, 원주민 공동체와 취약계층 등에 토지를 재분배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DPR은 이번 법이 단순히 토지 소유권 증서를 발급하는 수준을 넘어 토지 소유 구조 자체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토지 소유 상한과 하한, 신설 기관의 조직과 권한, 분쟁 토지 처리 절차 등은 앞으로 대통령령이나 정부령 등 하위 규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최종 법률 전문도 법 통과 직후에는 공개되지 않아 세부 적

용 방식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법 제정 자체에는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입법 과정과 실제 집행 방식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농지개혁연합(KPA)과 인도네시아 법률지원재단(YLBH) 등은 법안 심의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됐고, 농민과 원주민 등 당사자들이 최종 법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실무 논의는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된 뒤 22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특히 국가가 관리하는 토지나 전략적 국가 자산과 관련된 분쟁이

실제 재분배 대상에 얼마나 포함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인도네시아의 토지 분쟁은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다. KPA에 따르면 2015~2024년 전국에서 3,234건의 농지 · 토지 분쟁이 발생했으며, 관련 면적은 740만ha, 영향을 받은 가구는 약 180만 가구에 달한다.

이번 법 제정으로 농지개혁이 개별 부처의 사업을 넘어 대통령 직속 조정체제 아래 추진될 법적 기반은 마련됐다. 그러나 실제 효과는 앞으로 제정될 시행규정에서 토지 재분배 범위와 소유 한도, 국가 소유 · 관리 토지의 처리 원칙, 분쟁 해결 절차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인도네시아]

## 톱슨목금형(톱슨발형)

## 아크릴 커팅, 밴딩가공

생산성 향상  
짧은제작기간  
정밀성  
품질 향상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뼈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톱슨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톱슨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 PT. 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 ://www.bs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1987busan@naver.com  
http://www.bs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톱슨금형, 특수 칼금형

## 인도네시아, 한국 관광객 겨냥 ‘평범함을 넘어’ 캠페인

발리 · 롬복 · 자카르타 · 중부자바 · 마나도 · 라부안바조 6개 지역 소개  
골프 · 웰니스 · 문화 · 해양관광 등 고부가 관광 확대



▲인도네시아 관광부의 ‘Go Beyond Ordinary’ 캠페인 이미지. 마나도의 풍부한 수중 생태계를 소개하며 한국 여행객들에게 발리 이외 지역의 관광지를 알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관광부 제공]

인도네시아 관광부가 한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골프와 웰니스, 문화, 미식, 해양관광 등을 결합한 고품질 관광을 확대한다.

인도네시아 관광부는 3일 ‘평범함을 넘어서(Go Beyond Ordinary)’ 캠페인을 통해 발리, 롬복, 자카르타, 중부자바, 마나도, 라부안바조 등 6개 지역을 한국 시장에 집중적으로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히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는 데서 벗어나 여행객의 관심사와 여행 방식에 맞는 체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광부는 해양관광, 미식, 웰니스, 럭셔리, 골프, 예술 등 틈새 관광 분야를 육성해 관광객의 체류 기간과 관광 소비를 늘리고 지역사회에 돌아가는 경제적 효과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발리는 골프와 미식, 웰니스, 문화 체험을 결합한 복합 관광지로 소개됐다. 열대 자연 속에서 골프를 즐기고, 웰니스 프로그램이나 문화 탐방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롬복은 발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분위기와 해변, 자연 경관, 해양 체험을 원하는 여행객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자카르타는 현대 인도네시아의 예술과 창의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도시 관광지로 제시됐다.

갤러리와 전시, 공연, 창작 공간 뿐 아니라 미식과 쇼핑, 도시 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국내 산업 부문이 계속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능력은 약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경제 성장률 1%포인트당 약 4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나, 현재는 최대 30만 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무함마드 사르무지 산업부 장관은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 산업의 성격에 변화가 생겼으며, 산업 성장을 가속화하여 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더라도,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고용 흡수력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콤빠스닷컴이 보도했다.

장관은 기술 중심 산업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산업이 더 빠르게 확장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부문은 9월에 회복 조짐을 보였다. S&P 글로벌 구매관리자지수(PMI)가 8월 49.8에서 9월 52.4로 상승하며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는데, 이는 신규 주문이 2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PMI가 개선된 것과는 대

중부자바는 역사와 전통문화 체험에 초점을 맞췄다. 유적지와 전통 예술, 공예, 지역 음식, 지역 사회 체험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문화유산에 접할 수 있다.

마나도는 다이빙과 스노클링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 목적지다. 풍부한 수중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이 강점이며, 한국과의 직항편 운항으로 접근성도 개선되고 있다.

라부안바조는 섬 경관과 해양 체험을 결합한 관광지로 소개됐

다. 특히 분홍빛 모래로 알려진 핑크비치(Pink Beach)가 대표적인 자연 관광지로 꼽혔다.

위디안티 푸트리 와르다나 관광부 장관은 “고품질 관광은 관광객이 인도네시아를 경험하는 방식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한국 여행객들이 각자의 관심사에 맞는 방식으로 인도네시아를 폭넓게 경험하면서 각 지역의 문화와 자연, 고유한 특색도 함께 발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관광부는 여행객의

맞춤형 여행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여행 도우미 ‘마이아(MaiA · Meticulous Artificial Intelligence of Indonesia)’도 운영하고 있다. 마이아는 관광 디지털화 사업인 ‘Tourism 5.0’ 프로그램의 하나로 개발됐으며, 인도네시아 공식 관광 사이트인 indonesia.travel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관광객 수 확대 자체보다 체류 기간과 소비액, 지역 경제 기여도를 높이는 ‘고품질 관광’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한국 대상 캠페인 역시 발리에 집중된 인도네시아 관광 수요를 다른 지역과 다양한 체험형 관광으로 분산하려는 전략의 하나로 풀이된다.

[데일리인도네시아]

## 인니, 산업 성장에도 일자리 창출은 둔화



▲2025년 5월 22일 브카시에서 열린 취업 박람회장에 수천 명의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몰렸다.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의 기술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해외의 숙련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해외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쁘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지난해, 전 세계적인 노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용접공부터 식당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50만 명의 숙련된 인력을 해외로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산업부와 이주노동자보호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직업 고등학교(SMK)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SMK 고 글로벌(SMK Go Global)’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4만 명, 내년에는 14만 명의 인력을 해외로 진출시킬 계획이다. 이주노동자보호부 목따루딘 장관은 해외에 충분한 일자리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을 위한 해외 일자리 29만 1천 개 가운데 현재까지 채워진 자리는 약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목따루딘 장관은 인도네시아 노동자에 대한 해외 수요가 매우 높지만, 해당 일자리들이 특정 역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고용주의 요구에 맞춰 교육 과정을 설계할 것이며,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한 뒤, 그에 맞춰 인력을 준비시켜 해외로 파견할 계획이라면, 이렇게 하면 교육 성과가 곧바로 글로벌 노동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PT. Indokon Multi Sarana는 실내 · 실외 비디오트론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No.1 선도 기업으로, 인테리어 시공 전문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략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PT. Indokon Multi Sarana

신뢰할 수 있는  
**비디오트론 솔루션 & 인테리어 시공**  
전문 기업

PT. Indokon Multi Sarana는 **정밀한 기획, 프리미엄 자재, 그리고 전문적인 시공 기준**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미적 가치, 높은 완성도를 갖춘 비주얼 및 공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선명한 디스플레이, 내구성 높은 시스템, 그리고 철저한 납기 준수를 실현합니다.

정부 기관을 비롯해 산업 단지, 오피스, 상업 공간, 공공 시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www.indokonmultisarana.com  
(+62)21-2263-2551  
Jakarta, Indonesia

## 피치 “인도네시아, 당분간 GDP 성장을 8% 달성 어려워”



▲자카르타 수디르만 도로(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는 인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브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임기 중 8%라는 목표치에 근접하기 어려울 것이며, 오히려 향후 몇 년간 하향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2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피치의 경제 담당 이사 알렉스 무스카텔리와 국가 신용등급 담당 이사 조지 쉬는 2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2027년과 2028년 인도네시아의 GDP 성장률이 대통령의 야심 찬 목표치인 8%의 3분의 2 수준인 4.9% 안팎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추가적인 대대적 개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번 전망치가 당초 전망치인 4.7%에서 상향 조정된 것이라며, 당초 전망에는 구조개혁이 인도네시아의 잠재 GDP를 높이는 효과,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자본심화 측면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반영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상반기 5.45%라는 예상 밖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피치는 연간 성장률이 5.2%에 그칠 것

로 전망했다. 이는 상반기에 재정 지출이 집중된 이후 재정 지원 효과가 약화되고, 순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스카텔리와 쉬 이사는 올해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와 외환보유액이 정책 신뢰성, 재정 규율, 자본 시장 거버넌스에 대한 우려로 인해 더욱 강한 압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은 당국이 통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신속한 정책 대응’에 나서고 새로운 중앙은행 총재를 빠르게 임명한 점이 압박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2027년 예산안은 정책의 연속성을 보여주며, 과도한 정부 지출로 인한 위험을 낮추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이는 정부가 정책 불확실성과 신뢰성에 관한 우려에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도, 불안정한 투자 심리와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대외 완충 장치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신용평가사는 인도네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과 동일한 ‘BBB’로 유지했으나,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향후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기보다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브라보워 대통령이 임기 내에 8%의 GDP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그의 선거 공약 중 가장 야심 찬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A. 로빈슨은 지난주 자카르타에서 역사적 데이터를 제시하며, 연간 8%의 성장률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매우 예외적인 사례일 뿐이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대런 아세모글루와 함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를 집필한 로빈슨은, 지난 10년 이상 연평

균 8%의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18개국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지역을 둘러보면 다들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간 8%씩 성장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으며, 이것이 그만큼 달성하기 어렵다는 뜻이며,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로빈슨뿐만이 아니다. 많은 인도네시아 경제학자들 또한 이 목표를 달성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카르타 소재 싱크탱크인 경제 개혁센터(CORE)의 모하마드 파이살 상임이사는 지난주, 정부 관계자들조차 대통령의 성장 목표에 대해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된다는 식으로 발언 수위를 낮추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에디슨 진, 클롯 슈퍼스타 컬렉션 공개



이번 협업 캡슐은 블루 스웨이드 및 물 버전의 풋웨어와 함께 밴쿠버와 홍콩에서 영감을 받은 어패럴 라인을 선보인다.

아디다스 오리지널스(adidas Originals)와 에디슨 진(Edison Chen)이 폭넓은 풋웨어 및 어패럴 라인업으로 구성된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x 클롯(CLOT) 슈퍼스타 컬렉션’을 공식 출시했다. 에디슨 진의 뿌리인 밴쿠버와 홍콩에서 영감을 받은 이번 파트너십은 공유된 디자인 렌즈를 통해 뚜렷한 문화적 모티프를 한데 모아낸다.

이번 캡슐의 중심인 풋웨어는 아카이브 실루엣을 두 가지의 각기 다른 해석으로 선보인다. 첫 번째 에디션은 고급스러운 디테일과 밑창의 톱

니 모양 홈 톱링으로 완성도를 높인 풍부한 블루 스웨이드 어퍼로 슈퍼스타를 재해석했다. 이와 함께 출시되는 슈퍼스타 물은 헤리티지 디자인을 편안한 슬립온 형태로 재구성했다.

함께 선보이는 어패럴 라인업은 실용적인 실루엣과 한층 수준 높은 구조적 완성도를 결합했다. 주요 아이템으로는 밀리터리 감성의 액센트가 더해진 셋업 카고 재킷과 쇼츠, 그리고 에디슨 진의 밴쿠버 시절에 대한 오마주를 직접적으로 담아낸 빈티지 스타일의 하키 저지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뿔은 로프 디테일이 돋보이는 새롭게 디자인된 트랙 팬츠와 패딩 처리된 리버스를 유틸리티 토트백이 포함된다. 출시와 함께 클롯과 오랜 기간 협업해 온 애니 최(Annie Choi)가 일러스트를 맡은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캠페인이 공개되었으며, 여기에는 에디슨 진과 함께 한국의 음악 그룹 LNGSHOT(오울, 룰, 우진, 루이)의 모습이 담겨 있다.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x 클롯 슈퍼스타 컬렉션은 10월 16일 컨펌드(CONFIRMED) 앱과 온라인 스토어, 그리고 전 세계 일부 지정된 리테일러를 통해 글로벌 출시된다.

HYPEBEAST

탁상용 카렌다 벽걸이 카렌다 가족 카렌다 동아리, 친목 카렌다



# 2027 달력



## 카렌다 제작을 시작으로 2027년(丁未年)을 미리 준비하세요!

카렌다 제작 전문업체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CREATIVE DESIGN COMPANY

**SILK ROAD**

제작 의뢰 : 0858 9060 0962, 0821 1122 8827  
021 5010 4614 / 15  
pt.kwanggaeto@gmail.com

광개토에 카렌다 제작을 의뢰하시면

1. 탁상용, 벽걸이용 카렌다를 고객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 제작해 드립니다.
2. 약 20만컷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촬영을 원할 경우 출장 촬영 가능합니다.
4. 귀사의 현장과 생산제품, 설비등의 이미지로 차별화된 제작 가능합니다.
5. 제작전 사전 디자인된 카렌다를 PDF로 먼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6. 가족카렌다, 동아리, 친목카렌다 제작시 최소수량 5권부터 가능

## 요즘 나이키 안 팔린다더니... 대박 난 일본 브랜드 정체

나이키와 결별한 지 50년...아식스의 반격 시작됐다  
옛 대리점이 세계 1위로 '코르테즈' 디자인 분쟁도  
러닝화 열풍 타고 부활



일본 아식스가 한때 자사 신발을 팔던 판매대리점에서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로 성장한 미국 나이키를 추격하고 있다. 나이키가 판매 부진과 브랜드 전략 차질로 흔들리는 사이 아식스는 고기능성 러닝화에 집중해 미국 시장에서 부활했다. 미국 내 첫 연구개발 거점도 열어 기술 경쟁력을 앞세운 공략을 강화한다. 23일 도쿄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아식스의 시가총액은 최근 약 3조4000억엔(약 28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나이키는 2021년 최고 약 2600억달러에서 최근 569억달러, 약 8조8000억엔(약 73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여전히 격차가 있지만 양사의 기업가치 역전 가능성도 거론되기 시작했다. 아식스 신발 팔던 나이키...반세기 만에 좁혀진 격차 두 회사의 인연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식스의 전신 오니츠키는 나이키의 전신인 블루리본스포츠를 통해 미국에 신발을 수출했다. 제품을 공동 개발하며 판매를 늘렸지만 블루리

본이 1971년 자체 브랜드 나이키를 출범시키고 독립하면서 결별했다. 이후 공동 개발한 러닝화 '코르테즈'의 상표와 디자인을 둘러싼 소송으로 관계에 앙금도 남았다. 나이키는 농구 등으로 사업을 넓히고 마이클 조던 등 세계적인 스타와 손잡으며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유력 판매대리점을 잃은 아식스가 독자적으로 미국 시장을 개척하는 동안 양사의 격차는 벌어졌다. 흐름이 바뀐 계기는 코로나19 사태였다. 나이키는 오프라인 판매가 위축되자 직접 판매를 강화했고, 이 과정에서 대형 유통업체와의 관계가 악화했다. 한정판 제품을 세분화해 고가에 판매하는 방식도 팬들의 이탈을 불렀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최근 주가는 2021년 정점의 약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아식스는 저가 경쟁에서 벗어나 러닝화의 기능성에 집중하면서 반등했다. 지난해 북미 매출은 1411억엔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20년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2010년대 후반 적자가 이어졌던 북미 사업의 영업 이익률도 지난해 11%까지 개선됐다. 저가 제품 줄이고 기술력으로 승부 아식스는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던 90달러 이하 저가 제품의 판매를 전략적으로 축소했다. 할인 판매 비중이 높았던 직영점도

약 100곳에서 절반으로 줄였다. 대신 고기능성 러닝화 개발과 러닝 전문점 중심의 영업을 강화했다. 달리기 대회 참가 등록업체를 인수해 소비자와의 접점도 넓혔다. 북미에서 러닝화가 차지하는 판매 비중은 65%로 다른 지역보다 높다. 운동 성과와 직결되는 신발에 지출을 아끼지 않는 달리기 애호가들을 공략해 '달리기라면 아식스'라는 이미지를 구축한 것이다. 아식스는 22일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의 미시간대 캠퍼스에 미국 내 첫 연구개발 거점을 열었다. 운동과학과 재료공학, 계측기술 등의 연구를 지원하고 성과를 스포츠화 개발에 활용한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까지 연구 결과를 반영한 시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다만 나이키의 부진 속에서도 스위스 온과 프랑스에서 출발한 호카, 중국 브랜드와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아식스는 러닝화에서 쌓은 기술력과 브랜드 이미지를 다른 스포츠 분야와 의류로 확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산하 고급 스니커즈 브랜드 오니츠키타이거도 미국 공략에 나선다. 일본 여행 중 제품을 구매하는 미국 소비자가 늘어난 데 힘입어 내년 2월 로스앤젤레스에 플래그십 매장을 열고 미국 시장에 재진출할 예정이다.

[한경]

## 7년 만에 돌아오는 Nike Air Force 1 Low “What The LA” 출시일 확정



한쪽 힐에는 Lakers 퍼플, 다른 쪽 토에는 Dodgers 블루, 그리고 이를 하나로 아우르는 로스앤젤레스 레터링. Nike가 Air Force 1 Low “What The LA”를 재출시하며, 2019년 첫선을 보인 이후 처음으로 이 의도적인 미스매치 스니커즈를 다시 매장 진열대에 올린다. 공식 White/Black-Hyper Jade 컬러웨이를 입은 이 스니커즈는 로스앤젤레스 스포츠팀의 컬러를 좌우 신발에 불규칙하게 나누어 배치했으며, 새로운 변화를 주기 보다는 오리지널 콘셉트를 그대로 유지했다. “What The” 공식은 과거 출시된 제품들의 컬러와 소재를 리믹스하여 하나의 혼란스러운 디자인으로 완성하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Nike의 가장 상징적인 스토리텔링 기법 중 하나다. 이 콘셉트는 이전 SB Dunk 컬러웨이의 요소들을 한데 엮어냈던 2007년 Nike SB Dunk Low “What The Dunk”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Nike Basketball은 2010년대 초반 Kobe 8, KD 6, LeBron 11의 “What The” 에디

션 등 시그니처 모델에 이 방식을 도입했다. “What The LA”는 과거 컬러웨이의 아카이브가 아닌 특정 도시에 이 리믹스 논리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왼쪽 신발은 화이트 오버레이 아래 레드 토가 자리하고 있으며, 탠 스웨이드 패널이 Lakers 퍼플로 마감된 힐까지 이어진다. 오른쪽 신발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택하여 토 부분의 Dodgers 블루로 시작해 그린 사이드 패널을 지나 골드 컬러로 힐 카운터를 감싼다. 좌우 어느 쪽도 처음부터 끝까지 단일 스포츠팀의 컬러 팔레트를 온전히 따르지는 않는데, 이는 2019년 모델에서 그대로 이어받은 특징이다. 두 신발을 하나의 세트로 보이게 하는 것은 베이스가 되는 스탠더드 Air Force 1 Low의 구조와 함께, 각 신발의 측면 힐과 인솔에 새겨진 로스앤젤레스 스크립트 레터링이다. 이러한 공통된 브랜딩과 실루엣을 제외하면 좌우 신발은 시각적인 공통점이 거의 없으며, 이는 “What The” 방식이 의도한 핵심이기도 하다.

**KYUNGWON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ir compressors**  
**KYUNGWON Compressor is manufactured in Korea with 100% Korean Technology**



KYUNGWON COMPRESSOR  
GENUINE PARTS

**KYUNGWON  
COMPRESSOR**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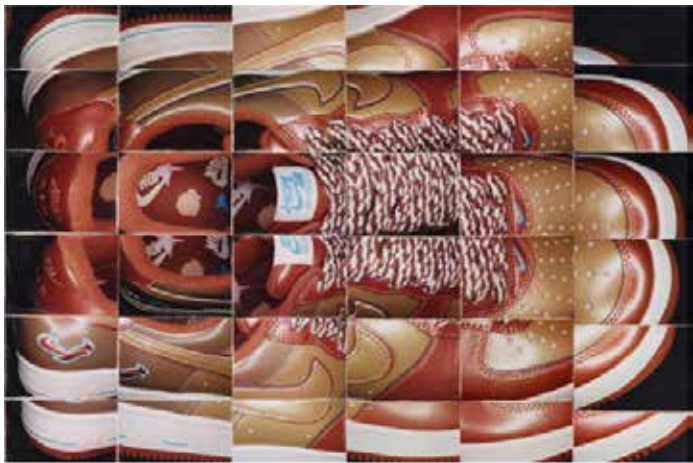
**한국직영점: (주)동부경원세기**

TEL: +82-2-465-6308/3884 박용환 대표: +82-10-5345-2884  
Email: dbkw2000@hanmail.net Web Site: www.dbkw2000.com

**인도네시아 대리점: PT.KYUNGWON ARIM INDONESIA**

공장 및 사무실: JL. Niaga Industri Blok QQ2 Nomor 11 Kawasan Industri, Jababeka Phase 2, Desa/Kelurahan Pasirsari, Kec. Cikarang Selatan, KAB. Bekasi, Provinsi Jawa Barat  
TEL: +62-21-8926-1370 전상규 법인장: +62-822-5818-8770  
Email: dbkw2000@gmail.com

## 니고와 제이홉, 나이키 x 니고 에어 포스 1 월드 투어를 통해 아이코닉한 신발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다



나이키와 니고가 다시 한번 협업에 나섭니다. 일본 아티스트 니고가 패션, 음악, 문화 전반에서 오랫동안 발휘해 온 영향력을 떠올리게 하는 또 하나의 특별한 에어 포스 1 스타일을 선보입니다.

최근 진행한 협업에서 니고는 BTS의 제이홉과 함께 클래식을 재해석하고, 제이홉 특유의 호비코어 미학을 구현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존경심에서 비롯된 관계는 남다른 취향과 예술성, 디자인에 뿌리를 둔 창의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으며, 이는 니고와 나이키 디자이너들이 여러 시즌에 걸친 에어 포스 1 여정을 위해 다시 선보인 2001년 에어 포스 1의 생동감 넘치는 디자인으로 구현됐습니다.

니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이홉은 진정한 문화 앰배서더가 되어 다음 세대에 문화를 이어 줄 수 있는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클래식한 1990년대 도쿄 감성이 니고와 제이홉이 재해석한 실루엣에서 오늘날 글로벌 스타의 아우라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창작 세계에서 영감을 받은 이번 디자인은 번트 선라이즈와 메탈릭 골드 컬러의 유광 가죽 갑피에 클로린 블루 포인트와 제이홉의 활기찬 에너지를 담아낸 시그니처 다람쥐 그래픽을 더해 완성됐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개성이 물씬 풍기면서 전 세계 차세대 아티

스트들에게 영감을 줄 실루엣이 탄생했습니다. 제이홉에게 이 신발의 돋보이는 디테일과 소재는 과거에 대한 향수와 한층 세련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는 요소입니다.

제이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가 표현한 에나멜 소재의 컬러 조합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흔히 볼 수 없는 특별한 신발 끈 디테일도 스니커즈의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죠. 정말 멋져요.”

수십 년 동안 에어 포스 1은 스포츠와 패션, 음악 전반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캔버스 역할을 해왔습니다. 니고는 에어 포스 1 월드 투어를 통해 이러한 유산에 경의를 표하며, 이 실루엣을 새로운 세대의 문화 혁신가들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개될 스타일도 니고의 친구들과 그에게 영감을 미친 요소들, 개인적인 역사에서 영감을 얻으며, 2001년 에어 포스 1의 세련된 빈티지 룩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나이키 x 니고 x 제이홉 에어 포스 1은 10월 17일 humanmade.jp에서 단독 출시되며, 이후 10월 22일 SNKR와 일부 매장에서 전 세계에 출시됩니다.

아래에서 니고의 에어 포스 1 협업 사진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하세요. 나이키와 니고의 에어 포스 1 월드 투어를 통해 앞으로 선보일 새로운 스타일도 기대해주세요.

about nike

## 美 의류 · 신발 관세...소비자 부담 확대 뉴욕 전체 관세부담 150억달러...가구당 평균 1856달러 의류 90% 가까이 수입 의존... 브랜드 · 유통업체 가격 인상 압박

미국의 관세 강화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의류 · 신발 시장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의류 · 신발은 일부 주에서 관세 부담이 가장 큰 품목군으로 나타났으며, 추가 비용이 브랜드와 유통업체를 거쳐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전미납세자연맹재단(NTUF)에 따르면 뉴욕이 작년 1월 이후 부담한 전체 관세액은 약 150억달러로, 가구당 평균 1856달러로 추산됐다.

뉴욕과 콜로라도, 델라웨어 등에서는 의류 · 신발이 관세 부담이 큰 품목군으로 조사됐으며, 미국 패션시장의 높은 해외 생산 의존도가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의류 · 신발이 관세에 민감한 이유는 생산 구조에 있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의류 · 패션제품의 약 90%가 해외 생산에 의존하며, 주요 브랜드들은 중국과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아시아 생산국에서 제품을 대규모로 조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 관세가 오르면 브랜드의 원가 부담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다. 생산기지



와 판매시장이 서로 떨어져 있는 패션산업 특성상 관세 변화가 수입 단계에서 바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의류는 추가 관세 도입 이전부터 품목별로 최혜국(MFN) 관세를 부담해왔다. 여기에 국가별 · 품목별 추가 관세가 더해지면서 일부 제품의 실제 수입 비용은 더욱 높아졌다.

늘어난 비용은 브랜드와 유통업체의 가격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 주요 패션기업들은 추가 비용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거나 공급업체와 분담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일부 제품에서는 판매가격을 올려 비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관세 부담이 장기화할수록 기업이 비용을 내부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관세 강화로 브랜드들이 발주 지역을 조정할 가능성은 있지만, 원단 · 원부자재 공급망과 생산능력, 품질, 납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해 단기간에 생산국을 바꾸기는 어렵다.

미국 의류시장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향후 관세 정책 변화가 브랜드의 원가와 판매가격, 글로벌 소싱 전략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출처 : 국제섬유신문

## 힐러스누크, 첫 26FW 컬렉션으로 슈즈 시장 첫발

플랫 · 스니커즈 · 로퍼 · 부츠 등 폭넓은 라인업 구성  
네 가지 라스트 기반 실루엣에 셔링 · 스테드 · 버클 디테일 적용

신규 슈즈 브랜드 힐러스누크(Healers Nook)가 공식 론칭과 함께 첫 번째 2026 가을 · 겨울(26FW) 컬렉션을 공개했다.

힐러스누크는 ‘에브리 스텝, 어 리틀 힐링(Every Step, A Little Healing)’을 슬로건으로 일상적인 슈즈 디자인에 개성 있는 실루엣과 디테일을 더하는 브랜드다. 익숙한 신발의 형태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과 개인의 취향을 표현하는 스타일을 함께 제안한다.

첫 컬렉션은 플랫과 스니커즈,



로퍼, 부츠 등 다양한 슈즈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클래식한 실루엣을 기반으로 셔링과 스테드, 버클 등의 장식 요소를 적용해 제품별 디자인에 차별화를 뒀다.

특히 소프트 라운드 라스트, 슬림 오벌 라스트, 청키 라운드 라

스트, 볼륨 라운드 라스트 등 네 가지 라스트(신발 제작에 사용하는 발 모형)를 활용해 각 제품의 특성에 맞는 실루엣을 구현했다. 발에 밀착되는 인솔과 브랜드 로고를 새긴 아웃솔을 적용해 착용감과 디자인 요소를 함께 고려했다.

브랜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세부 장식도 눈에 띈다. 브랜드 심볼에서 착안한 웨이브 바와 플라이 스토퍼를 비롯해 로고 엠블럼, 레이스 라벨 등을 제품 곳곳에 배치했다.

플랫 라인은 발레리나 슈즈에서 착안한 스트랩과 셔링을 중심으로 스테드, 리본, 퍼 등 다양한 디테일을 활용했다. 같은 플랫 형태 안에서도 장식과 소재의 변화를 통해 서로 다른 스타일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스니커즈와 로퍼는 볼륨감 있는 실루엣을 중심으로 전개했으며, 부츠 라인에는 가을 · 겨울 시즌의 특성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일상적인 캐주얼 스타일링부터 장식적인 요소를 강조한 착장까지 제품 구성을 넓혔다.

힐러스누크는 이번 26FW 컬렉션을 시작으로 기존 슈즈의 형태를 재해석하고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접목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 여성 스포츠화 시장 커진다...나이키 · 아디다스도 전용 제품 확대 여성 발 구조 반영한 스타트업 잇따라 등장...대형 브랜드도 대응

여성 스포츠 인구가 늘면서 여성 신체 특성을 반영한 운동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동안 남성용 제품을 작게 만들거나 색상만 바꿔 여성용으로 판매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여성의 발 구조와 움직임을 고려한 제품 개발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여성 퍼포먼스 신발 시장 매출은 지난 8월까지 1년간 6% 증가한 68억 달러(약 9조 1188억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남성 제품 매출은 3% 늘어난 91억

달러(약 12조 2031억원)였다.

여성 전용 스포츠화 스타트업도 성장하고 있다. 농구화 업체 몰라키스와 축구화 업체 아이다 스포츠 등은 여성의 발이 남성과 다른 생체역학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뒤꿈치를 좁히고 발가락 공간을 넓히거나 아치 지지력을 높인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 업계에서는 여성에게 맞지 않는 운동화를 착용하는 것이 발과 발목, 무릎 부상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품 착용감뿐 아니

라 부상 예방 측면에서도 여성 전용 설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외신은 그동안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이 여성 전용 제품 개발에 소극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별도의 제품을 만들려면 여성 발 모형을 새로 제작하고 다양한 사이즈에 맞는 생산 설비와 금형을 구축해야 해 비용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성 소비자들 사이에서 남성용 제품을 구매하거나 유니섹스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나이키와 아디다스, 푸

마, 언더아머 등 대형 업체들도 여성용 퍼포먼스 제품을 확대하고 있다. 푸마는 여성 농구화를, 나이키는 여성의 전방십자인대 부상 위험을 고려한 축구화를 출시했으며 언더아머도 여성 발 모형을 기준으로 만든 러닝화를 선보였다. 여성 스포츠화 전문 업체들이 제품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기존 대형 브랜드 중심의 유통망과 프로 스포츠 후원 구조를 뚫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업체는 오프라인 매장 입점에 어려움을 겪어 온라인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ZDNET

## 평소에 신어도 예쁜 트레일 러닝화 등장, 아식스 신발 추천

실버 러닝화의 한층 더프한 사촌 격인 젤 트랜센드 FJ를 소개한다. 눈과 비에 젖은 지면은 물론 거친 환경에도 적응한다.

실버 러닝화의 한층 더프한 사촌 격인 젤 트랜센드 FJ를 소개한다. 눈과 비에 젖은 지면은 물론 거친 환경에도 적응한다.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곧 눈과 비로 길도 미끄러워질 것이다. 가장 아끼는 스니커즈가 새로 장만한 가을 재킷과 아무리 잘 어울린다고 해도, 닳아버린 밑창은 위험 요소다. 아웃도어에 특화된 신발을 신으면 되겠지만, 나는 아직 등산 전문가처럼 차려입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마침 여기 아식스가 좋은 대안을 마련했다.

은밀한 분위기의 올 블랙 컬

러로 공개된 젤 트랜센드 FJ는 아식스가 1990년대에 선보였던 하이킹화와 워킹화 아카이브를 깊이 파고든 모델이다. 어퍼에는 트랜센드 시리즈와 젤 오디세이, 젤 레이디 어스의 디자인 요소를 가져왔다. 여기에 견고한 가죽 패널과 편칭 디테일, 포인트 스티치를 더했다. 측면에는 입체적으로 솟아오른 타이거 스트라이프가 자리한다. 스니커즈 마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는 여전히 충분하다. 다만 야외에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신발처럼 보일 뿐이다.

밑창으로 시선을 옮기면 아웃도어의 성격이 더욱 뚜렷해진다. 젤 후지트라부코 7의 솔 구조를 활용했으며, 울퉁불퉁하고 날카로운 아웃솔 패턴 덕분에 신발 전체가 한층 묵



직하고 강인해 보인다. 플라이트폼은 편안한 착화감을 더하고, 아식스그립은 이를 그대로 접지력을 높여준다. 여기에 거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두툼한 로프 슈레이스로 마무리했다. 바로 이런 점이 젤 트랜센드 FJ를 흥미롭게 만든다. 최근 스니커즈 시장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운동화가 하이킹화

로 변신하고 싶어 하는 듯하다. 나이키 줍 보메로는 더욱 투박해졌고, 푸마 스웨이드는 아웃도어 장비에서 가져온 디테일을 장착했다. 심지어 에어 조던 1까지 거친 지형에 대비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꽤 훌륭하다. 하지만 때로는 젤 트랜센드 FJ처럼 처음부터 아웃도어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신발을 만드는 편

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이 모델은 모든 요소를 더욱 세심하게 고려한 결과물처럼 느껴진다. 아웃도어 아카이브에서 영감을 받아 완전히 새롭게 탄생한 모델로, 가죽 어퍼와 트레일 러닝화의 밑창이 처음부터 하나의 디자인으로 계획된 듯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블랙 컬러에서는 시선을 끌기 위해 요란한 형광색을 사용할 필요도 없다. 다양한 패널과 소재의 질감만으로 충분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루스한 청바지나 카고 팬츠는 물론, 평소 실버 아식스 운동화에 매치하던 바지와도 잘 어울릴 것이다. 아식스 젤 트랜센드 FJ 블랙은 이달 중 전 세계 아식스 매장과 일부 편집숍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GQ



INDONESIA OFFICIAL DISTRIBUTOR

### 경원기계공업(주) 인도네시아 직영대리점

KYUNGWON AIR COMPRESSOR — OFFICIAL GENERAL DISTRIBUTOR FOR INDONESIA

#### 에어 컴프레서



(한국본사) 인니직영대리점 인증서

30+

30년간 축적된  
압축공기 기술력



100%

정품부품  
인니전지역 A/S가능



이 광 선 TEL 0812 100 77732  
김 병 남 TEL 0852 8834 7666



WEBSITE  
kwcompressor.id